

# 증권사, ISA 채권투자 스타트... 절세 효과에 '관심 집중'

미래에셋증권 등 업계, 서비스 돌입  
이자소득세 등 최대 400만원 비과세  
상품증정·주식쿠폰 등 이벤트 마련

그동안 불가능했던 중개형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채권 매매가 올해 법 개정으로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채권투자에 대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에 대해 채권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중개형 ISA를 통한 채권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ISA는 주식, 펀드, 주식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



여의도 전경.

/뉴스시스

품이다. 기존에는 상장주식, 펀드, 주식연계증권(ELS)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대표적인 확정금리형 상품인 국공채와 회사채 투자가 가능해졌다.

ISA계좌를 통한 채권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일반계좌에서 채권에 투자할 경우 이자에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지만, 중개형 ISA에서 채권 투자를 하면 배당과 이자소득세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서민형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일부터 ISA

채권 매매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장외채권, 장내채권뿐만 아니라 전자단기사채(전단체), 주식관련사채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도 거래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6일 ISA 채권매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상품을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달 28일 중개형 ISA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권 매매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고객유치차원에서 5월 31일까지 '바이 코리아 바이 본드 위드 ISA(Buy Korea Buy Bond with ISA)'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면 중개형 ISA계좌에서 원화장외채권을 매수한 금액에 따라 중개형 ISA 전용 주식 쿠폰 최대 20만원권을 증정하고, 중개형 ISA계좌로 입금 후 8월 말일까지 잔고 유지시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20만원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NH투자증권도 지난 2일 ISA를 활용한 채권 매매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달 한 달간 ISA 계좌 채권 매매 고객을 대상으로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이벤트를 진행한다. 채권 매수 금액만큼 연 5%(세전) 91일물 특판 RP가입 기회를 제공하며,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 주식 시장 부진으로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올해 2월까지 장외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5조6621억원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순매수한 금액(7945억원)보다 7배나 큰 규모다.

전동현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이사는 "고금리시대에 채권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개형 ISA에서 채권 매매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신용융자 이자율 내렸더니... '빚투' 늘었다

금투협, 신용융자 잔고 17.8조 집계  
작년 초 보다 10.67%↑, 올 최고수준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비판에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융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증시 변동성에 따른 유익이 필요하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는 17조8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말(16조944억원)과 비교했을 때 10.67%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올해에만 1조489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신용거래 융자 잔고

가 이 기간 2283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 4배 이상 규모가 늘었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지수가 더 빠르게 단기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07포인트(1.75%) 상승한 816.49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8월 31일(807.04) 이후 6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다. 또 최근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하 추세도 빚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압박에 이어 최대 10%대까지 올렸던 이자율을 인하하면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총 9곳의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신한투자증권은 최단 기간인 7일 이내의 경우 이자율을 종전 연 5.05%에서 연 3.90%로, 최장 기간인 90일 초과인 경우 기준

연 10.0%에서 연 8.90%로 낮췄다. 키움증권은 신용융자 사용 기간별 이자율을 최대 2.1%포인트(p) 인하했으며,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내렸다.

단, 미국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 증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미국 고용·물가·소비 지표가 모두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오는 21~22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언급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연준의 매파적 정책과 달러 강세 등 악재로 변동성이 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임태택 대표이사(첫째 줄 왼쪽 두 번째) 등 한양증권 임직원들이 지난달 8일 진행된 제1회 치유공정 행사에서 재즈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한양증권

## 한양증권, 임직원 '조직 셀' 실험 나서

'CEO와의 한 끼 식사' 프로그램 진행

한양증권이 최근 10명의 임직원을 하나의 셀로 구성하는 이색적인 조직실험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총 500명의 임직원을 50개의 셀(Cell)로 각각 배치해 부서와 직급 등 인위적 조정 없이 무작위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같은 셀에 속한 임직원들은 하나의 조직공동체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 실험의 아이디어는 임태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제시했다. 임 대표는 '바다 전체를 끓이려 하지 말

라'는 맥킨지의 격언에서 조직실험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전했다. 바닷물 전체를 끓이는 건 불가능하지만, 작은 솥에 조금씩 나눠 끓이는 것은 쉽다는 뜻으로, 10명 단위의 그룹을 통해 응집력과 소속감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10명 단위의 '소셀'의 첫 프로그램은 CEO와의 한 끼 식사다. 각 셀에서 별도의 플랜을 구성하여 CEO를 초청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 이름은 '치유공정'으로 명명해, '아궁이에 불을 때 한술밥을 먹는다'는 뜻인 취유공정(炊猶共鼎)에 치유(심적회복)의 의미를 더했다. /이영석 기자 ysl@

## AI 이을 '양자기술'... SKT와 협업 관련기술 개발

### 株라쿨라의 종목

케이씨에스·우리넷·드림시큐리티

양자컴퓨터 개발, AI 진보에 큰 역할  
암호칩·암호키분배기 등 개발 성공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인공지능(AI) 테마를 이을 다음 주자로 '양자기술'을 꼽으며 케이씨에스와 우리넷, 드림시큐리티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이사는 "구글, 아이비엠(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들은 양자컴퓨터 개발이 AI 기술 진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양자기술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양자정보기술(QIT, Quantum Info

mation Technology)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양자가 갖는 물리적 특징인 중첩, 얽힘, 불확정성 등을 활용하는 분야다. 이를 이용해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케이씨에스와 우리넷, 드림시큐리티는 SK텔레콤과 협업해 양자암호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케이씨에스는 지난 2월 26일 SK텔레콤과 공동 개발에 성공한 '양자암호칩(QKEV7)'을 출시했다. 해당양자암호칩은 양자난수생성기(QRNG)와 암호칩(KEV7)을 합친 차세대 보안칩으로 사물인터넷 환경의 커넥티드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아파트 와이파이

해킹 방지 및 사무사물인터넷(IoT) 기기에 탑재해 조기 상용화할 방침을 밝혀 수혜가 기대된다.

우리넷은 SK텔레콤과 양자암호화 관련 협력을 통해 양자암호키분배기(QKD) 방식의 전송암호모듈을 개발했으며, 디지털 뉴딜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국방을 비롯해 민간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드림시큐리티는 양자컴퓨팅 환경에 대응하는 포스트 양자 암호알고리즘(PQC)을 지난 2022년 SK텔레콤과 협업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최 대표는 "SKT와 협업 중인 양자암호 기술 감소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레퍼런스 확보로 시장 선점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 이달 전국 아파트 1.8만여 가구 분양

수도권 물량 61%, 1만여 가구

이달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에 1만 8000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일부 물량은 미뤄질 수 있다. '1·3 부동산 대책' 이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못해서다.

6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전국 29곳에서 2만 3585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 7687가구로 지난달 물량

(1만 6539가구) 대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 781가구(60.95%)며, 지방은 6906가구(39.05%)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103가구(11곳, 45.81%)로 가장 많고 부산 2384가구(2곳 13.48%), 인천 1539가구(3곳 8.70%) 등이다. 서울은 고덕 강일 3단지 사전청약을 포함해 총 3곳에서 1139가구(6.44%)가 분양된다.

/이규성 기자 peace@